

“한국 관광의 중심 ‘전남’으로 오세요”

‘2024~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김영록 지사, 서울 광화문서 선포
스페인·태국 등 9개국 주한대사
국회의원·시장·군수 등 대거 참석
세계인의 여행 버킷리스트 마케팅
섬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도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17일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에 앞서 열린 전남 관광 설명회에서 국내외 관광객 대규모 유치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선포식에는 스페인, 태국 등 9개국 주한대사 및 관련 기관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을 전 세계인들의 글로벌 여행 버킷리스트에
올려놓기 위한 본격적 마케팅 대전이 시작됐다.

전남도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태국정부
관광청, 스페인 등 9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한 가
운데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
을 개최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은 전남의 모든 관광·문
화 이슈를 글로벌 축제와 관광의 장으로 연계, 전남
곳곳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남의
핵심 관광 사업이다.

이날 선포식은 전남의 5개 테마 관광콘텐츠인 ▲
축제·둘레길 ▲남도미식 ▲웰니스 ▲남도 K-컬처
▲농·산·어촌 등을 고유 브랜드화하고, 전남만의
로컬 여행프로그램을 발굴한 뒤 '세계관광문화대
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구촌 관광명소로 키워나
가겠다는 비전을 국내외에 알리는 자리다.

선포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미얀마·스페
인·태국·베트남 등 9개국 주한대사,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전남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막식 특별공연 이후 개회
사를 통해 "전남 관광의 매력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로 알려 전 세계 관광객이 앞다퉈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이어 전남만의 5개 테마 콘텐츠 중심의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관광 비전을 미디어아트
기법으로 발표하는 주제공연, 홍보대사 위촉식, 캐
이팝(K-POP) 공연 등이 펼쳐졌다.

전남의 관광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전남 세계관
광문화대전' 홍보대사로는 국내 사찰음식의 대가
백양사 천전암 정관 스님, 다국적 걸그룹인 키스오
브라이프, 방송인 조나단과 파르티샤 남매가 위촉

됐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선포식 기간 전남의 독특한
여행지와 테마여행코스, 체험프로그램 등을 전천
히 살펴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농부마술쇼, 전통주
칠링버스킹, 대금 앙상블·태권무 공연, 태국 송크
란축제단 공연 등 버스킹도 계속된다.

또 전남의 5개 핵심 콘텐츠를 테마로 하는 주제
존과 전남의 맛, 멋, 흥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관광
지,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체험공간인 22개 시
·군의 도시존도 마련된다. 도·시·군에서는 전남
지역 관광지와 체험·교통·숙박·맛집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예약·결제, 일정 관리가 가능한 전
남관광플랫폼(JN TOUR) 가입 이벤트도 펼쳐진
다.

한 달 이내 체류하며 지역을 아는 고향품에 살아
보기, 당일치기나 하루 일정의 고향 나들이 투어 등
향우·재외동포들을 위한 그 때 그 시절 추억을 떠올
릴 '고향애(愛) 여행가자'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해외 유명 관광자원
과 국제교류 등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2025 국제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
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도 집중 개최한다.

앞서, 전남도는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
서 태국대사, 태국정부관광청장, 박우량 전남시장
군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관광설명회
를 열고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
했다.

이날 전남도·태국정부관광청·장흥군 간 업무협
약을 통해 장흥 정남진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
간 교류·협력 사업이 이뤄지고 전남도·(사)중화동남
아여행협회·(사)한국공영관광협회 간 업무협약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류도 본격화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교수 30% 진료중단 예고

18일 의사협회 총궐기대회 동참
광주·전남 동네병원 12% 휴진
시민단체 "생명담보 집단휴진 철회"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의사 총궐기대회
를 여는 18일 광주지역 삼강병원 의사들도 동참하
기로 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교수 30% 가량의 휴
진 참여가 예상되고, 광주·전남 동네 병원 12%가
휴무신청을 했다.

17일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

시 기준 진료교수 중 30% 정도가 18일 휴진을 하
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대·조선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
서 설문조사를 통해 18일 의협 전면휴진에 동참하
기로 결정했다. 응급, 필수 진료과를 제외한 교수
들의 동참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교수 스스로 진료를 하는 경우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외래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
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휴진 동참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양 대학 비대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절
반 가량 교수가 동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부 교수는 정상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이

날 진료 환자 수를 감축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개인 의원 11~14% 가량도 진료
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지역 전체 의료기관 1053곳 중 124곳
(11.78%)이 전남은 966곳 중 137곳(14.18%)이
18일 당일 휴진 신고를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긴급성명을 내
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
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국민의 85.6%가 집단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에서, 의사들이 진료 거부 행위를 강행한다면 사

회적 신뢰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
도, 명분도 취약한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 결
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역 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의대인원 증원에 반대하
는 의료계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히포크
라테스 선서에 담긴 숭고한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
과 함께 올바른 의료개혁의 길로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대책없는 증
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공공의료 강
화로 이어질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
없이 증원만 하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돈 되는 진료 과목으로 몰릴 것"이라며 "일단 증
원만 해놓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밀어
붙이는 행태는 의료 대란만 부추기는 졸속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베니스 비엔날레 - 아르세날레 전시관 ▶11면



타이거즈 전망대 - 부활하라 나성범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

- ✔ 전남 대도약의 시작, 2025년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 ✔ 도로, 철도 등 SOC 예산 8년 연속 1조 원 이상 국비 확보!
- ✔ 한국형 아우토반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검토 착수!

전라남도
JeollaNamdo